

“한국판 뉴딜 중점 지역균형 뉴딜에 둘 것”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 목표 제시 국가 균형 발전 신속 추진...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통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일상 회복과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다음 달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청와대·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코로나19 백신 누가 먼저 접종하나

우선 접종대상 50~64세 포함 검토... 최대 3600만명 예상 9개 그룹 공개...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수감자·직원 포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권장 대상자에 50~64세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만큼 이달 중에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확정하고, 최대 3600만명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해 순차적으로 접종에 나설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우선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해 “대상자 규모를 3200만~36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9~64세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만성 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고려해왔으나 최근 50~64세

성인을 비롯해 대상을 확대했다.

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을 보면 크게 9개 군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다.

정 본부장은 이어 “우선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명단을 확정하고 이어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검토했

으며, 앞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의 노인이 1순위 우선접종 대상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우선 접종 권장 대상 안에 표시된 순서가 우선순위의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전문가들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시설은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초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울 때 무료접종을 염두에 뒀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접종 권고 대상자에 대해 무료접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처간 협의를 지속해왔다”면서 “가능하면 많은 분께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정은경 “다음 주 코로나19 일일 확진 600~700명 예측”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주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600명에서 700명일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지난주에는 1.0 정도였고, 이번 주 추세는 0.88로 1 이하가 돼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중간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환자 수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재생산지수만 가지고 환자 수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 청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40일 만에 400명대를 감소한 데 대해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청장은 첫 번째 위험요인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꼽았다. 연합뉴스

작년 실업급여 역대 최대 11조8000억원

코로나 관련 고용 충격 여파 수급자 60만명... 43.2% 급증

지난해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은 11조85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19년 지급액(8조91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의 여파로 풀이된다.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작년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2000명(12.5%)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명으로, 18만1000명(43.2%)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8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9000명(1.7%)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작년 5월(15만5000명) 바닥을 친 뒤 점점 늘어나 9~11월에는 3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12월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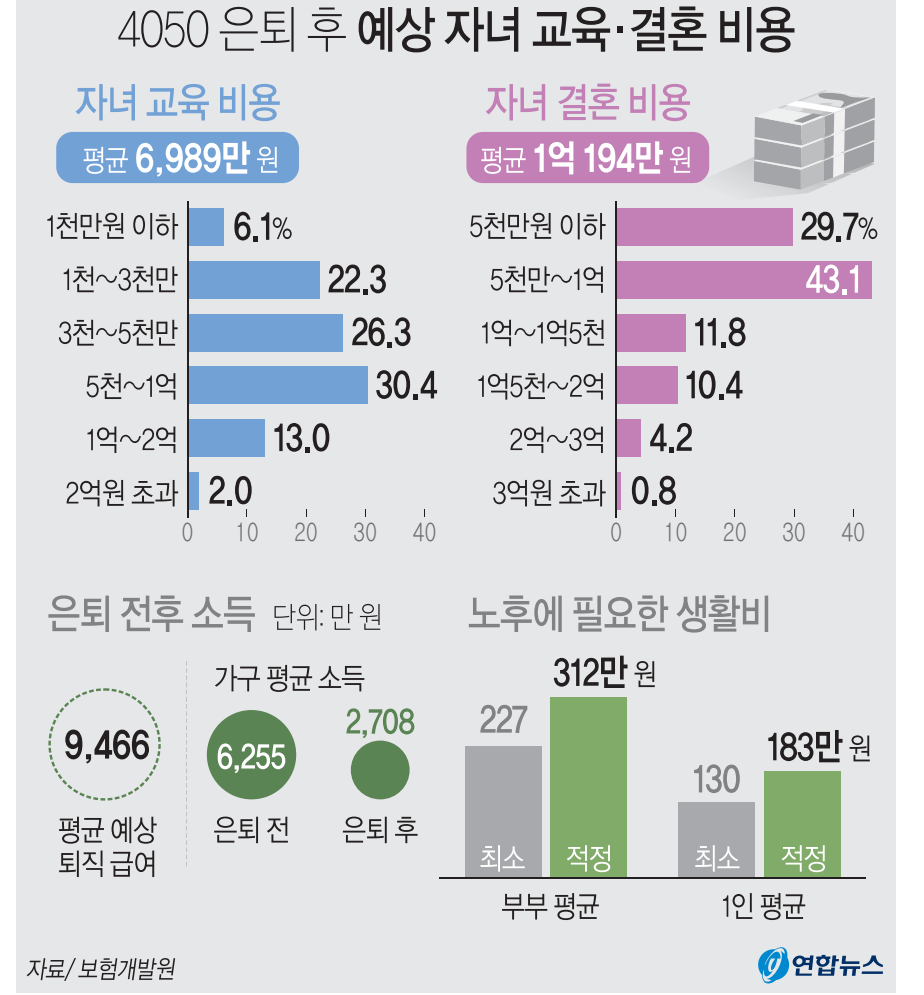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끌어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96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만1000명(2.6%) 증가했다. 증가 폭이 11월(41만1000명)에 못 미쳤다.

연말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 줄줄이 종료되면서 서비스업 가운데 공공행정 분야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영향이 컸다.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11월만 해도 전년 동월보다 20만5000명 늘었지만, 12월에는 6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3차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만4000명 줄어 감소 폭이 커졌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의 가입자도 1만4000명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요가 급증한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업의 가입자는 2만1000명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연합뉴스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영업사원 모집

- 태양광 보조사업 영업 경력자 우대
- 태양광발전소(RPS) 영업경력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우대

▶이력서접수: 워크넷 (work.go.kr)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